

매헌梅軒 권우權遇의 “매헌집梅軒集” 출판



매헌집(梅軒集)



매헌 권우 신도비



고유제

매헌 권우(1363~1419)의 매헌집(梅軒集)이 출판되었다.

이에 매헌공 종중 편찬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토) 11시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 산61-1에 위치한 매헌공 묘소에서 권순호 매헌공종중 명예회장, 권형선 매헌공종중 회장, 권오훈 대중회 문헌편찬위원장, 권혁찬 편찬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권순호 명예회장은 발간사에서 “3백년 풍상을 겪으면서 거의 인몰되어 세간에 전함 이 없고 다만 최근 들어 문중에서 복사본 수십 부를 만들어 몇몇 후손이 독해 음미의 임무 없이 소장제전所藏世傳의 맥이 나 있게 되었”는데 “이 보전寶典을 국역하고 주석註釋하여 누구나 뜻이 있으면 접하여 열독할 수 있게 하고 학계에서도 편의로 이 자용資用할 접근성을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후손된 자로서 막선莫先으로 도모할 대사가 아닐 수 없었”다고 말하듯이 매헌집 국역은 후손의 입장에서나 학계 차원에서든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었다.

매헌공 종중에서는 2016년 초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역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편찬위원장에는 권순호(權純浩) 매헌공종중 명예회장, 고문은 권형선(權炯璇) 매헌공종회장, 위원에는 권혁찬(權赫燦), 권태영(權泰永), 권용주(權容周), 권의철(權義喆), 권기동(權奇童), 권공범(權公範), 권순성(權純成), 권용배(權容培), 간사에는 권용호(權容鎬) 총무가 담당하였다.

권혁찬 위원은 권오훈 문헌편찬위원장을 찾아가 “내 이 문집이 국역되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는 사불명목死不瞑目이다. 일이 좋지에 완성될 수 없을 것인가 다만 살아서 그 시작이라도 보고 싶으니 당신이 도모해 달라”(국역매헌집 후기)고 부탁하였다.

이에 권오훈 문헌편찬위원장이 역주(역주자 권광욱權光旭)를 맡아 3년여에 걸친 공력 끝에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 번역한 매헌집은 매헌공의 셋째 아들 참판공(參判公, 拔) 맥에서 소장하고 있던 중간본을 저본(底本)으로 삼았다. 번역된 문집은 900여 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다.

문집 제1권에는 서발序跋, 세계도世系圖와 오언고시五言古詩 6편이 실려 있다. 매헌선생집 서문은 선생의 문인인 학역재學易齋 정인지鄭麟趾가 짓고, 발문 역시 선생의 문인인 고은辜隱 안지安止가 지었다.

권2는 칠언고시 16제題, 권3은 오언율시 112제와 오언배율五言排律 7제가 수록되어 있다.

권4는 칠언율시 92제이고, 권5는 오언절구 6제, 칠언절구 139제와 잡체시雜體詩 6제, 권6은 잡체雜著 8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문집 처음에 매헌선생영가 권씨세계지도梅軒先生永嘉權氏世系之圖 즉 세계도가 나온 다는 점이다.

역주자는 이 문집의 특징을 살려 본문 이외에 매헌집 부록을 추가하여 먼저 선계先系 부분으로 시조부터 15세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 다음은 매헌공의 연보年譜 등 실기實記를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후계後系로 17세부터 20세까지의 실기, 사적事蹟, 묘비문, 실록 자료 등을 편집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정인지는 서문에서 매헌 선생과 중형 양촌 선생을 도학으로는 북송의 정이천(정이程顥)과 정명도(정호程顥)에 견주며, 문학은 소동파와 소철 형제에 비유하면서 “소씨(소식과 소철)는 정녕 정씨(정호와 정이)와 같이 될 수 없고 정씨 또한 소씨에게 양보할 바가 있으니 선비를 숭상함에 있어 어찌 공변된 의논이 없으리오. 양촌과 매헌 양 선생 형제는 하도河圖(그대 황

인류사에는 정사와 야사와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족사는 족보이고 한국은 족보의 첨단선진국입니다

추밀공파 양촌문충공계

창수공족보를 만듭니다

창수공은 양촌 문충공의 4남 안숙공의 손자로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에 산소가 계신

광흥창수 휘 憶을 계파조로 하는 1만5천 자손입니다

이번 족보는 한글판한자병기 전산보로서 책자는 첨단출판체재로, 전산판은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열람되는 영상보로 병행제작됩니다

수단[수록단자]의 마감은 2020년 4월 30일이고

수단비[등록비]는 창수공종회에서 지원하여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발간사무실: 우:08756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5 천우빌딩 503호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출구에서 150미터. 팩스겸용전화 070-4320-7776

e-mail 5081kwon@naver.com. 간사 권병관 010-8869-2867. 종보사 02)723-4480

안동권씨 창수공종회장 권병돈

하에서 나와 주역의 기본이 된 그림)와 낙서洛書(고대 낙수洛水에서 나온 글로 서경書經의 근본이 됨)에 궁통窮通하고 재주는 파영坡嶺(소식의 호 동파와 소철의 호 영빈유로潁濱遺老에서 파坡와 영嶺을 따 두 사람을 지칭)의 일가를 이으면서 양가의 재주와 학문을 겸하였으니 가히 태어나기는 동쪽 변수에서 하였으나 천하의 사람이 되었고 몸은 비록 세상에서 서거하였으나 백세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정씨 형제에게는 문학이 부족하고 소씨 형제에게는 도학이 미흡한데 반해 매헌과 양촌 형제는 도학과 문학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대의 석학 정인지가 이렇게 극찬할 정도였으니 두 형제의 학문이 어땠는지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고은 안지는 발문에서 “매헌선생이 대사성으로서 성균관의 장이 되어 도학을 창명하고 가르침을 베풀어 게을리 하지 않으니 사방에서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가 바람소리를 듣고 이르러 날마다 운집하였다”고 술회한다.

소한당所閑堂 권람은 매헌공 행장에서 “이때에 학자가 양촌선생에게 중용 대학 주역의 수업을 청하니 이르기를 ‘내가 아우만 같지 못하니 마땅히 가서 배우라’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배우려는 무리가 길을 메우고 매일 새벽에 그 문 앞에 다투어 모여서는 미처 섬돌과 뜰락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는 밖에서 벽과 담에 귀를 대고 들었으며, 선생 또한 후학을 힘써 진취시킴을 자기 임무로 삼아 가르쳐 깨우치기를 권태로워하지 않으면서 반복하여 효유하여서는 반드시 듣는 자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케 한 연후야 그만두었으므로 학자가 열복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일컬으며 그리워하고 있다”고 회고한다.

이런 명성을 바탕으로 충녕대군(세종)이 세자로 책봉되자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이 되어 동궁의 서언書筵에서 세자와 더불어 경사經史를 강론하기에 이른다.

매헌 권우는 양촌 권근의 동생이자 포은 정몽주의 문인이다. 그는 어려서는 양촌에게서 수업하고 자라서는 춘정 변계량과 깊이 사귀었으며 포은 정몽주 문하에서 포은의 학통을 이었다.

매헌집 국역편찬 작업을 한참 추진하고 있던 중에 초간본 매헌집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권순호 명예회장은 “후손에게 경전동지의 기적과 같은임 뿐만 아니라 민족문

■기고 - 권혁원 (權赫遠, 추밀공파 양촌공계(陽村公系) 안양공(安襄公)의 18대손)

주말연속극을 시청하고서… 느낀 감회

나는 지난 3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KBS 제2TV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7시 55분부터 9시 15분까지 방영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라는 108부작 주말연속극을 단 한 번도 건너뛰지 않고 전 회를 모두 시청했다. 한마디로 드라마에 푹 빠져 살았다. 이 드라마는 국민드라마라고 할 정도로 전국 평균 시청율 27.6%를 기록할 정도였다. 국민드라마라 할 정도로 인기리에 방영된 주말연속극을 보고 느꼈던 소회를 몇 자 적고자 한다.

주인공 박선자(김혜숙 역)는 1958년 8월 10일에 태어나 향년 61세가 되는 2019년 9월 22일에 사망한다. 주인공 박선자는 환과고독(鰥寡孤獨)의 과부로 식당을 경영하면서 세 자매를 부축할 없이 잘 키워 출세시킨 후 출가시켰다. 막내딸 결혼식에도 축하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만인의 축복 하에 성대하게 혼례를 치른 후 다음 날 아침 6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세 딸과 사위들은 고인을 천년 거목 아래 수목장으로 안장한다. 고인은 폐암 말기로 자기가 죽을 것을 예측하고 가정사를 모두 정리하고 숨을 거두었으니 후회 없는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유일한 여걸이며 명예를 만방에 떨친 위대한 여중장부(女中丈夫)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제 일년 후에는 산수(傘壽) 즉 팔십의 나이에인데 슬하에 결혼하지 못한(남혼여가男婚女嫁) 남매가 있어 할 일이 태산보다 크고 한심스럽게 한이 없다. 세월은 행운유수(行雲流水) 같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집 자식은 불혹(不惑)의 나이(40)를 지나 치천명(知天命)의 나이(50)에 접어들는데 혼인 상담을 하는 중매자도 없으니 어찌하여 이렇게도 내 사주팔자가 불길(不吉)한지 참으로 한스럽기만 하다. 수신제가(修身齊家)하고 경세제민(經世濟民)해야 할 자가 자기의 장래를 결정하지 못하고 막대한 불효를 자행하니 탄식할 지경이다.



해가 서산으로 떨어져 날은 저무는 데 갈 길은 먼 격이다. 백세시대라고 하지만 장수하는 것이 평생 동안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인간 구실 못하고 백세를 살면 무엇 하겠나. 본인의 건강이 중요하고, 중풍 치매 등 질환이 없어야 하며, 자손들한테 불행함이 없어야 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화합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나이 들어 수치스러운이 많은 것 (수측다욕 壽則多辱)은 불행이다. 나이 40을 넘어 치가(治家)하여 자식을 출산한들 언제 양육하고 교육시켜 출세하여 부모 앞에서 입신양명하는 것을 보겠는가. 자식이 장가들지 못하니 불효막심한 처지이다.

나는 사후(死後)에 황천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선대 조상님들을 뵈어야 할지 송구하기 한이 없다. 결혼하지 않아 자식이 없어 조상 제사가 끊어진 것, 불효는 자식이 없는 것 이것이 큰 죄(불취 무자절선조사자不娶無子絶先祖祀者 불효유무후자不孝有無後者 대죄자야大罪者也)라 하였거늘! 우리 가문의 불행은 언제 해결될는지 심히 염려된다. 다른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은 자손 번창이 최상의 으뜸이라 하며 자식 자랑, 손자들 재롱부리는 자랑이 넘쳐나는데 나에게서는 머느리가 없으니 재롱부릴 손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우물하기 한이 없으며 즐거움을 모르고 수심 속에서 생활하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수치스럽게 한이 없기까지 하다. 가정을 이뤄 후사(後嗣)가 있어야 자손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선조에 대한 근본이며 입신양명의 근간인 것을 어찌하여 망각하고 있는지 한탄할 지경이다. 인생 말년에 수심을 안고 황천에 가게 되었으니 팔자타령을 아니할 수 없다. 그

화와 국가사회적으로도 그 의의가 심장한 일일 것이다”(발간사)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권오훈 문헌편찬위원장은 “300년 전 1722년에 유일했던 매헌집의 남루한 초간본이 현세에 전하고 있음은 기적같이 환상적이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이전에 발간된 한적漢籍은 대개 문화재로 등록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귀중한 국보급 문헌이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례로 조선조 초대 서울시장을 역임한 성석린의 시문집 독곡적獨谷集은 1456년에 간행되었다.

이 독곡집 초간본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 6개월 만에 서울시의 문화재 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6년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95호로 지정된 바 있다.

2019년은 매헌 선생이 탄신(1363)한지 656주기이고 서거(1419)한지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서거 600주년이 되는 해에 매헌집을 국역하였으니 안동권문의 문중사에 있어서나 학계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매헌 권우 선생의 역사적 위상 재조명은 물론 그의 사상과 철학 등에 대한 학술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리라 기대해 본다.

국보급 초간본 또한 매헌공 종중과 대중회를 비롯해 안동권문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초간본 매헌집이 국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러나 나의 우물하고 수심 속의 불우한 생활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고질적인 병과 마음속의 깊은 심리적인 병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내 삶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이 80이면 수한(壽限)이 적은 것도 아닌데 자손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불효막심한 대죄를 짓고 저승에 가서 선조를 무슨 면목으로 뵈어야 할지 걱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몇 마디 남기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사후에 너희들 7남매 화목하고 미소가 만대까지 이어지는 가정으로 지속되길 기원하고 명예를 보배로 생각하고 생활하기 바란다. 명예는 황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금전 문제로 형제 자매간에 의절(義絶)하는 행동은 없어야 한다. 금전으로 인해 의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미운 자에게도 덕담으로 호의를 베풀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수원수구誰怨誰咎)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인간은 청렴결백하게 살아가는 것이 근간임을 가훈으로 남기고 부탁하니 명심하고 재물을 탐내지 마라. 또 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생활하여야 한다. 평생 수신제가(修身齊家)하고 저승에 갈 때는 원한이 없어야 편안히 눈을 감고 염라대왕의 명에 따라 극락세계에 가는 것인데 고난이 많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극락세계에 가서 무사히 잘 지낼테니 염려마라.

내가 운명한 후에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흥성에 치표(置標)해 놓은 만년의 유택(幽宅)에 매장하길 요망한다. 그러니 통곡하고 애통해 하지 마라. 저승 갈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이 세상과 이별하기 때문에 발인 시 축문에도 영결종전(永訣終天)이라 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말연속극을 시청하고 느낀 소감으로 이 글을 썼다. 나는 주인공 박선자처럼 수신제가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되었으니 한스럽기 그지없다. 두서없이 썼는데 이 글이 내 유언장이 되어버렸다.